

# 경쟁률 9대 1...국선변호사 달라진 위상

광주고법 산하 전주 1·제주 2명 선발에 27명 지원  
수임 부담 없고 급여 보장...경력법관 임용에도 영향

국선변호인이 인기다. 영화 ‘소수 의견’,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주인공으로 국선변호사가 등장하고, ‘장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헌으로 이끌어 낸 실력파들이 맹활약하면서다. 실제 광주고법 국선전담변호인 3명 선발에 27명이 몰렸다. 경쟁률 9대 1이다.

24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관내 국선전담변호인 16명(광주고법 2, 광주지법 6, 전주지법 5, 제주지법 3) 중 결원된 3명을 새로 뽑고 있다. 전주지법 1명,

제주지법 2명이며, 25일 면접을 치른다.

이번 국선전담변호인 선발에는 총 27명이 지원, 경쟁률 9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제주지법 1명 선발에 8명이 지원한 것보다 더 늘었다.

국선전담변호인은 법원이 서민·저소득층에 변호인을 지정하고 국가비용으로 대신 수임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임기는 2년이며, 3차례 위촉이 가능하다. 월 20~35건 사이에서 법원이 배당해주는 형사소송만 맡는다. 보수는 첫 위촉때 월 600만원

을, 재위촉때 월 700만원, 2회 재위촉때 월 800만원을 받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개 6년을 다 채운다.

이처럼 수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월 300만원 안팎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초임과 비교하면 보수도 안정적어서 인기다. 여기에도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도 매력적이다. 공익 업무를 맡다보니 경력법관 임용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심리적 위안도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국선전담변호인의 전국 경쟁률은 2007년 1.9대 1에 불과했지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직후 2009년 5.5대 1에서 지난해 9.2대 1까지 치솟았다.

일반 변호사 업무를 겸하면서 건당 30만 원을 받고 국선번호를 받는 일반 국선변호인도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광주지법 국선변호인 신청을 받은 결과, 120여명이 접수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310여명인데 이 중 40% 가까이 신청한 것이다.

박승일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임 압박에 시달리고 보수도 불안정해지면서 국선전담변호인이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이 더해지고 법관 임용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식어가는 ‘사랑의 온도탑’

전남 89도...경기침체에 참여 저조 17년만에 미달 위기  
마감 D-6...광주는 98.5도로 5년 연속 100도 달성 눈앞

‘사랑의 온도탑을 채워주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16 나눔캠페인’ 마감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남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89도에 머물고 있어 17년 연속 100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법인의 참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5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지난해 24일까지 모금액은 모두 70억9300만원(89.2도)으로 목표액(79억5000만원)보다 8억5700만원이 부족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94.3도)보다 5.1도 낮은 수치다.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억 6200만원이 적고, 기부 건수는 4만27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27건이 줄었다.

캠페인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억2242만원의 추가 모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캠페인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하루 평균 모금액(13~24일)이 4500만원으로 줄어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24일 현재 98.5도(35억1807만원)를 가리키는 등 목표액(35억7000만원)을 5193만원 남겨두고 있어, 5년 연속 100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사랑의열매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기업과 기관·단체 등 법인들의 참여가 많이 줄면서 기부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됐던 캠페인의 경우 법인의 모금은 913건에 35억8900만원이 었지만 올해는 874건 32억8600만원에 그쳤다. 개인기부도 지난해 5만1285건(38억 6500만원)에서 올해 4만1897건(38억600만원)으로 줄었다. 문의 061-902-6800(전남사랑의열매), 062-222-3566(광주사랑의열매).

/\*김경인기자 kki@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16 나눔캠페인’ 마감일이 1주일 앞둔 25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98.5도를 가리키고 있다. 광주모금회는 이르면 26~27일 사이 목표액(35억7000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후배들에 기회”...방극성 광주고법원장 사표

방극성(61·연수원 12기·사진) 광주고등법원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2월11일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임식은 다음달 4일 오전 11시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원 출신인 방 고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5년 9월 법관에 임용된 뒤 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호남에서만 30년5개월간 법관을 지낸 호남 법조계의 수장이며, 아파트 1채만을 재산으로 가져 ‘청빈법관’으로 명성이 높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54

달출 20:08  
달짐 08:39

반가워요! 햇님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호린뒤맑음 | -5/4 | 보성  | 호린뒤맑음 | -7/4 |
| 목포 | 호린뒤맑음 | -3/5 | 순천  | 호린뒤맑음 | -5/6 |
| 여수 | 호린뒤맑음 | -3/5 | 영광  | 호린뒤맑음 | -5/5 |
| 나주 | 호린뒤맑음 | -7/4 | 진도  | 호린뒤맑음 | -3/6 |
| 완도 | 호린뒤맑음 | -2/6 | 전주  | 구름맑음  | -7/3 |
| 구례 | 호린뒤맑음 | -9/5 | 군산  | 구름맑음  | -7/2 |
| 강진 | 호린뒤맑음 | -4/5 | 남원  | 구름맑음  | -7/3 |
| 해남 | 호린뒤맑음 | -5/6 | 축산도 | 호린뒤맑음 | 1/5  |
| 장성 | 호린뒤맑음 | -8/4 |     |       |      |

◇바다 날씨

|    | 오전     | 오후           |              |
|----|--------|--------------|--------------|
| 서해 | 앞바다    | 서~북서 0.5~1.5 | 서~북서 0.5~1.5 |
| 남부 | 면바다    | 서~북서 1.0~2.0 | 서~북서 1.0~2.0 |
| 남해 | 앞바다    | 서~북서 0.5~1.5 | 서~북서 0.5~1.5 |
| 서부 | 면바다(동) | 서~북서 1.0~2.0 | 서~북서 1.0~2.0 |
|    | 면바다(서) | 서~북서 1.0~2.5 | 서~북서 1.0~2.5 |

◇물때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3:24 | 08:42 |
|    | 16:02 | 21:13 |
| 여수 | 10:43 | 04:16 |
|    | 22:51 | 16:42 |

◇주간 날씨

|       |       |       |       |       |        |      |
|-------|-------|-------|-------|-------|--------|------|
| 27(수) | 28(목) | 29(금) | 30(토) | 31(일) | 2/1(월) | 2(화) |
|       |       |       |       |       |        |      |
| -3/6  | -1/7  | 3/5   | 3/7   | 1/8   | 0/7    | -1/6 |

◇생활지수

|  |      |    |
|--|------|----|
|  | 체감온도 | 관심 |
|  | 동파   | 높음 |
|  | 뇌졸중  | 높음 |

## 장휘국 광주교육감 “전교조는 교원단체”

### “사무실도 유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범외노조로 본 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 “전교조는 교원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회에서 “범외노조와 단체협약은 못해도 정책 협의는 가능하다”면서 “범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 단체인데 사무실을 빼라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강제결단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의 시행을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교총과도 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노조가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교섭 등이 가능한지, 법적 인 효력에 대해 검토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노동법에 따라 전교조 광주지부에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광주·전남 지난해 임금 체불 389억원

### 근로자 8608명 못받아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 근로자 8608명이 지난해 임금 389억원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말 기준 광주와 나주·화순·담양·장성·함평·영광·곡성·구례지역 사업장 4285곳에서 근로자 8608명에게 389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376억원(4195개 사업장)보다 체불액이 13억원(3.7%) 증가한 수치다.

광주노동청은 이 중 233억원을 체불한 950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체불금액이 전년(148억원)보다 36% 늘어난 202억원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99인의 중견사업장에서 75억원에서 138억원으로 84% 급증했다.

광주노동청은 “수출과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지역내 제조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광주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재산 은닉과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가격은 500만원대

충분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호수지정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383-6400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할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